

■ 신정아 '가짜학위' 파문... '큐레이터' 그것이 알고 싶다

전시·기획 총괄... 현대 미술계의 꽃

인턴십·연수 거쳐 학에서 자격 취득

화려함 비해 취업·임금 여건 열악

신정아(35) 전 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의 '가짜학위' 파문으로 그의 직업인 '큐레이터'에 대한 관심이 새삼 높아지고 있다.

현대미술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큐레이터는 미술 전공자들에게 선망의 대상이다. '전시 기획, 작가·작품 섭외, 예산집행 등 전시 전반에 대한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학예사다. 흔히 큐레이터와 작가, 비평가의 현대미술을 이끌어가는 삼각축으로 불리며, 스타 큐레이터는 국내외 미술계와 작가들 움직이는 유력 인사로 부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화려한 뒤에 가려진 현실은 녹록치 않다. 대학에서 미술사나 미술이론을 공부하는 학생 대부분이 학에서 자격증을 갖고 있을 정도로 공급이 넘치지만 이들이 일할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2001년부터 제정된 박물관진흥법에 의해 시험을 거쳐 학에서 자격증을 딴 사람만 현재까지 1천700명을 헤아린다.

광주의 경우 학에서 채용할 수 있는 기관은 광주시립미술관, 조선대미술관, 전남대박물관, 우재길미술관, 의재미술관 등 5곳에 불과하며, 근무중인 학예사도 15명 안팎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큐레이터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에 비유될 정도로 어렵다. 광주시립미술관은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지난 2005년 이후 학예직을 뽑지 않고 있다.

반드시 학에서 자격증이 있어야 큐레이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가짜학위' 파문의 주인공 신정아씨는 자격증이 필수조건이 아닌 사실 미술관을 통해 입지를 다진 케이스다.

그는 지난 1997년 금호미술관에 아르바이트생으로 발을 들여놓은 뒤 기존 큐레이터들이 미술관을 그만두자 이듬해 큐레이터직을 물려받아 전시기획자의 길로 들어섰다.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본관에서 연수중인 큐레이터 지망생 염순영(30)씨가 전시 작품을 손질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학예직 희망자들이 사립미술관에 눈을 돌리지만 입사 기회를 얻기는 사실상 어렵다. 대부분 공개채용을 통하지 않고 '알음 알음'으로 사람을 뽑기 때문이다. 또 학에서 자격증의 필수요건인 실무경력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문광부에서 지정한 경력인정 대상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1년여 동안 인턴십, 연수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인턴십 과정에서 제공되는 임금은 일일 교통비와 식비가 전부인데다 업무가 고되기로 소문나 있다.

이처럼 전시 큐레이터가 되는 길은 험난하지만 급여는 기대치를 밑돈다. 광주시립미술관을 비롯한 국립미술관의 큐레이터 초임은 2천만 원을 밑돈다.

최근 한 미술관에서 인턴십과정을 마친 학예사 L(26)씨는 "전시준비를 위해 밤을 새우는 일이 다반사다"며 "큐레이터가 겉으로 보이는 만큼 그렇게 화려한 직업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신정아 사태 재발막자” 큐레이터 협회 만든다

신정아씨 가짜학위 파문을 계기로 미술전시를 기획하는 큐레이터들의 공식모임인 '한국큐레이터협회' 창립 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7일 미술계에 따르면 일부 국·공립 및 사립 미술관 현직 큐레이터, 독립 큐레이터 등은 지난 14일 인사동에서 사단법인 형태의 '한국큐레이터협회'를 내달 18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모임을 갖고 협회 정관 및 발기문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설립의가 시작된 한국 큐레이터협회의 설립준비위원장은 한국 큐레이터계의 1세대인 박태경(여·72)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이 맡기로 했다.

한국큐레이터협회의 회원 가입 자격은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미술관에서 5년 이상 큐레이터로 근무한 사람이 정회원이며, 그 이하 경력 소지자는 준회원이 된다.

아이 걱정 말고 공연 즐기세요

광주문예회관 9월 중순부터 어린이 놀이방 운영... 간이 매점도

어린 자녀를 둔 주부들에게 공연 관람은 '그림의 떡'이다. 결혼 전에는 다양한 공연을 챙겨보며 문화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도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웬만해서는 공연장 나들이가 힘든 게 사실.

또 어린이 입장 불가라는 사실을 모르고 갔다 주최측과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도 많았다.

광주의 대표적인 공연 시설인 광주 문예회관에 어린이 놀이방이 생길 예정으로 있어 이런 주부 관객들의 고민이 해결될 것 같다.

광주문예회관(관장 김병용)은 늦어도 오는 9월 중순부터 어린이 놀이방을 운영한다. 또 지난해 폐쇄했던 간이 매점도 다시 문을 연다.

최근 서울 예술의 전당과 국립극

장, 인천 문화예술회관을 직접 방문, 시설 등을 둘러본 문예회관측은 각 시설의 장점을 벤치마킹 할 예정이다.

문예회관은 1층 로비 좌우측에 놀이방과 간이매점을 설치키로 하고 현재 공사 업체를 모집 중이다.

회관측은 당초 지난해 놀이방을 개설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난항을 겪다 최근 추경에서 3천500만원을 확보,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15평 규모의 놀이방은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 각종 놀이 시설과 장난감 등을 갖춘 예정이며 자격증을 가진 보육 교사가 공연 시간 1시간 전부터 아이들을 돌볼 예정이다.

로비 왼편에는 간이 매점을 다시 설치한다. 관람객들이 오후 7시30분

공연에 맞춰 문예회관에 도착하려면 대부분 저녁 식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매점이 없어 최근까지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회관측은 샌드위치, 어묵 등 직접 조리하지 않는 간단한 음식들을 판매할 업체를 개초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김병용 문예회관장은 "주부들의 경우 아이들 때문에 공연장에 쉽게 오지 못했고, 일반 관객들 역시 감상 능력이 없는 어린 관객들 때문에 관람이 어려웠는데 놀이방이 운영되면 이런 문제가 많이 줄어들 것 같다"며 "간이 매점이 생기면 관객들이 간단한 요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원조 '사물놀이' 14년만에 재결합 공연

김덕수, 최종실, 이광수 등 '사물놀이' 탄생의 주역들이 후배 강민석(1986년 작고한 고 김용배의 후임)과 함께 사물놀이 탄생 30주년을 기념해 내년에 함께 무대에 선다.

최종실 중앙대 교수는 1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물놀이 탄생 30주년인 내년 3~12월 중 김덕수, 이광수, 강민석과 함께 국내 및 해외 공연을 벌이기로 약속했다"며 "사물놀이 원조 멤버들이 공식적으로 함께 공연하기는 1994



〈김덕수 씨〉 〈최종실 교수〉

년 국악의 해에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공연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원조 멤버들이 여전한 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내

년을 넘기면 더 힘들어진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며 "그 이후에는 지금과 같은 기량을 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사물놀이는 1978년 서울 대학로의 소극장인 공간사당에서 김덕수, 이광수, 김용배, 최종실에 의해 탄생했으며 강민석은 1984년 김덕수와 음악적인 이견으로 국립국악원으로 자리를 옮긴 김용배를 대신해 사물놀이패에 들어왔다. /연합뉴스

北 김동환 화백 中 아트페어 '10대 작가'로 선정

북한의 김동환(46) 화백이 중국에서 열린 국제예술박람회에서 10대 작가로 선정됐다.

제10차 베이징(北京)국제예술박람회 조직위 관계자는 17일 "조선(북한) 만수대창작사 조선화창작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동환(46) 화백이 '가장 영향력있는 10대작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박람회는 중국 국무원 산하 문화부에서 승인한 미술품 전시와 판매를 겸한 국제아트페어행사로서 올해 박람회에는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1만점이 넘는 작품이 출품됐다. 조직위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에서는

10대 작가로 선정된 화가는 중국(대만 포함)이 6명으로 가장 많고 북한 1명, 이란 1명, 일본 1명, 프랑스 1명 등이다.

김 화백은 지난 12~16일 개최된 박람회에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선보여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개성에서 태어난 김 화백은 평양미술대학을 졸업한 뒤 만수대창작사에서 활동해왔다. 그는 1997년과 1999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동일미술전'에 참가해 남측 작가들과도 교분을 나눴으며, 2003년 8월 통일대축전 행사 참가차 서울을 방문한 경력이 있다. /연합뉴스

다문화 가정 영·유아 교육

21세기 여성발전위원회 토론회

(사)21세기 여성발전위원회는 19일 오전11시 호남대학교 관산캠퍼스 복지관 3층 교수 세미나실에서 '다문화 가정 영·유아 교육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

장하경(광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의 사회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서는 서영숙(무지개 다문화 가족 서기)씨가 주제 발표를 하며 이윤자(전 광주시 정부부시장), 김복옥(무지개 다문화 가족 상임 총무)씨가 토론자로 나선다. 문의 062-373-387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꽃·나무·물고기... 동화 같은 세상

이을배 개인전 25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화려한 색채로 동화 같은 회화세계를 추구하고 있는 이을배씨가 18~25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8화제를 맞은 개인전에서 이씨는 원색적이고 화려한 질감의 작품 30점을 선보인다. 이씨는 이번 전시에서 색면들의 번진 효과를 바탕으로 꽃과 나무, 새, 물고기 등을 형상화한 작품들로 관람객들을 만

난다. '기억-꿈-고향' 연작은 내비와 열대어, 나무 등 현실에서는 한 자리에 머물 수 없는 사물들을 화폭에 옮겨놓음으로써 동화적인 '이상향'을 만들고 있다.

조선대 미대 회화과를 졸업한 뒤 200여 차례 공모전과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대한민국미술대상전, 바다사생대전, 벽골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한국



'기억-꿈-고향 I'

미술협회 여수지부장을 역임했다. 문의 062-360-1630.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movies

이제야 황금시대! Happy Time

영화야니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 현대약국사거리 ♥에매1544-0600

1관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전세) 최고급관
2관	다이하드 4.0 (디지털/12세)
3관	다이하드 4.0 (12세)
4관	트랜스포머 (12세)
5관	트랜스포머 (12세)
6관	트랜스포머 (12세) / 삼 (15세)
7관	해부학교실 (15세) /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전세)
8관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전세)
9관	다이하드 4.0 (12세)

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데이 화이트가 종료됩니다.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무료팝콘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주차장이 편한 극장—

엔터시네마

충장로 5가 ☎ 228-2700

1관	해리포터 (전세)
2관	택시4 (12세)
3관	슈렉3 (전세) / 검은집 (18세)
4관	오션스13 (12세)
5관	트랜스포머 (12세)
6관	밀양 (15세)
7관	다이하드4 (12세)

금,토(2일간)심야상영
*자주식 동시 주차장 200대 <3시간 무료>
매주 금·토 심야 2,000원 할인

월드시네마 영화시네마 *에매:www.joycbs.com/1688-7941

콜롬버스시네마 상무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 (무의화리동편)

1관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전세/전세) / 삼 (15세)
2관	어린이전용관)하울의 움직이는 성 (12세)
3관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전세)
4관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전세)
5관	트랜스포머 (12세)
6관	트랜스포머 (12세)
7관	다이하드 4.0 (12세)
8관	해부학교실 (15세)
9관	다이하드 4.0 (12세)
10관	다이하드 4.0 (12세)

*호남 최대 주차장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상무점연결 빈번 (1번 or 2번) → 0원

즐거움이 가득 *www.mct12.co.kr/1588-9101

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

1관	트랜스포머 (12세)
2관	트랜스포머 (12세)
3관	해리포터 (전세)
4관	다이하드 4 (12세)
5관	해리포터 (전세)
6관	해리포터 (전세)
7관	해부학교실 (15세)
8관	삼 (15세)
9관	다이하드 4 (12세)

*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특별석 회원만을 위한 전용영구 비연 인터넷 예매 문의
*전화예약 가능 1588-9101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시네마 기쁨 *www.primuscinema.com/www.jellcinema.co.kr*

제일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다이하드 4.0 (12세)
2관	해리포터5 (전세)
3관	트랜스포머 (12세)
4관	해리포터5 (전세)
5관	다이하드 4.0 (12세)
6관	해부학교실 (15세)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